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제정세도 불 밝히고 빠르게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계의 수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세금부담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한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양도소득세가 무려 32.4% 늘어난 3조8400억원이나 걸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상속 증여세도 지난 해 1조7000억원을 걷어 들여 목표 대비 42.9%나 더 높은 세수를 달성했다.

올해는 재산세와 거래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일제히 오르는데다 자동차세와 경유·LPG세가 인상되고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한 담배값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 1인당 국내 부담액은 지난 해 245만원에서 올해는 270만원으로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준조세까지 합치면 국민들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치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유효수요를 줄여 경기침체를 연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감면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확대재정정책이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조세정책이 침체된 경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로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세 부담 너무 늘어난다

이어질까 두려운 심정이다. 한편으로 이와 같이 조세정책이 조세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하경제를 범람하게 하며 시장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높은 양도세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세수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다. 그렇다고 반대를 잡기 위해 조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양도세와 상속세 등은 가진 자들의 세금이라 손 치더라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울리는 조세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얼마 전 정년퇴

직자 한 분이 현 정부가 노인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역정을 내고 있었다. 말인즉 자신과 같은 노인들은 같은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노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였다. 노인들을 위한 복리후생은 뒷걸음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정년퇴직자의 유일한 재산에 부과되는 무거운 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유차를 소지한 어느 셀러리맨의 목소리도 공감이 간다. 2년 전에 구입한 경유차의 자동차

세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8년에 가면 동일 배기량의 승용차와 같아진다. 따라서 일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은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과 같아진 셈이다. 경유값 인상에다 자동차세까지 인상되어 실상상이 됐다.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중에서 진항육조(賑荒六條)의 제5조에 보력(補力)이 있는데 흉년에 백성들의 양식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선왕들의 법이었으니 잡스러운 요역과 사사로운 빚은 모두 너그러이 늦추어 주어다 다그치고 독촉하지 말라고 했다. 수령은 장부를 들고 먼저 자기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부터 모두 감해 주고 나서, 그 밖의 조세들 중에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상부에 자제히 보고하여 그 징수를 막도록 함이 좋다는 내용이다. 요즘처럼 경기침체에 정부가 한번 음미해볼까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노자(老子)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조금만 흔들려도 썩어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흉년이 든 해의 백성들은 더욱 동요되기 쉽고 예민하다. 정부가 국민의 고충을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이다.



불자의 눈 는설위행 기명사설

조계종이 '출가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40세 이상인 사람의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1년만이다. 애초에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승가의 질 향상이었는데, 본래 목적보다는 부작용이 많아 단명한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총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떤 제도를 시행할 시에는 합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불교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가 과연 필요했는가를 세밀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종단에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승려의 자질 향상과 승려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이러한 금지제도를 통한 소극적인 측면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본다. 승가의 위상을 높여 출가라는 것이 참으로 원기 힘든 귀한 영예라는 인식을 주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가, 조건보다 목적이 중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의 위력을 사회에 알리고 회향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올바르게 수행한 스님들이 노후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조계종에서는 이런 측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승가 교육을 위한 참신한 제도들이 정착하여 승가가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된다면 자연 승가의 위상과 자질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단순한 부작용 때문에 출가연령 제한제도를 폐지했다는 소극적인 해명보다는 불교 근본정신에 충실하여 일시적인 일탈에서 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시행된지 1년 남짓된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키로 한 조계종의 결정은 정면으로 돌아오는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출가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승려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처방과 대비책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치와 보완책이 맞물려 출가야말로 참으로 무상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성태용(간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학교 폭력

사람이 생선 중에 아무리 많이 외우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文), 구(句)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이해를 했다하더라도 좋은 지식을 참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배움의 의미가 없다. <출요경>

경찰이 최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조직의 해체 방침을 밝힌 것은 일진회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진회에 의한 폭력 행사와 성일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달한 만큼 교육당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해체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일부 학교에서 일진회에 속한 중3 학생은 중2 후배로부터, 중2 후배는 중1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부터 돈을 뜯는 '금품 삼남고리'가 형성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는 학교의 위신이나 간부들의 승진 문제를 우려해 일진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교육은 자신이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특히 초중고 시절은 한 인간의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학생들의 폐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일진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처사는 결코 옳지 못하다.

참교육 실천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일진회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체시키는 것이야 피해학생은 물론 일진회 소속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 김주일(현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의 수치 여사'는 언제 나오나

미안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이 수여하는 '불교계의 뛰어난 여성' 상을 받았다고 한다. 태국의 대표적인 여성 민주화 운동가 판푸잉 풍속 반노명 여사와 함께 말이다. 그들은 민주화 영웅이자 불교계의 뛰어난 여성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교계에는 이런 상을 받을 인자가 없는 것일까? 뛰어난 사람이 죽으면 미국은 영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도 없는 생전의 잘못이 날날이 까발려진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속성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지 않을까.

이번 수치 여사의 수상 소식은 불자로서는 기쁜 일이었지만 한국인으로서서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돼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발굴, 일을 잘하는 이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고 해줘야 한다. 남과 다른 길을 묵묵히 가는 이들을 꺾어내려 하는 일 없이 최선의 평가를 아끼지 말자.

우선재(서울 강남구 대치동)

불교계도 문화 이벤트 많이 해야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이면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는 '주먹밥 콘서트(일명 주먹콘)'이 열린다.

성공회 푸드뱅크에서 주최하는 이 콘서트는 '나눔이 있어 행복한 점심'을 표방하고 있었다.

종교를 떠나서 도심에 있는 성당에서 조그만 주먹밥 세 개로 점심을 해결하는 대신 콘서트로 즐거움을 얻고 내가 낸 식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에 참 부끄러웠다. 콘서트도 종교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포크 가수 등이 출연하는 것이어서 즐거웠다.

불교계에서는 왜 이런 문화포교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은 웅장하고 거대한 이벤트만은 아니다. 1년에 한두 번 장엄한 행사로 불심을 키웠다면 매일 매일 접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들도 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산사음악회를 매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사람들이 앉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이런 작은 문화 이벤트로 인근 직장인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포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불교계도 성공회의 주먹밥 콘서트를 벤치마킹하자. 산사에서는 산사음악회를, 도심사찰에서는 주먹밥 콘서트 같은 작지만 나눔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야 한다.

돈 많이 들어서 휘황찬란하게 하는 행사만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광선(서울 중구 정동)

방부불교병원은 어떻게 됐나

지난해 12월경에 방부불교병원이 경영난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 이후 방부불교병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최초의 불교병원이라는 곳인데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 이후에 3달이 더되어 가도록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무심한 것이 아닐까. 지난해 말의 경영난 위기는 극복했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졌는지, 불교계는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소식과 함께 방법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노성준(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조계사 15% 나눔운동 헌영

현대불교신문에서 조계사가 나눔의 15%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사를 봤다. 참으로 장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불교계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해온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한국불교를 대표한다 볼 수 있는 조계사에서 솔선수범해 복지기금을 적립하는 등 대사회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 기쁘다. 조계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이 전부 나서서 다양한 사회활동,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자가 됐으면 한다. 고영희(서울 강동구 고덕동)

'연대' 민영 심민섭



이것이 명품이다!

현품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지역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나무 산삼으로 일컬어지는 국내산 토종오가피와 최고의 산삼인 천중 산삼 원근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으로 탄생한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저자특강/서광 스님 (미국 보스턴 서운사)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마음을 정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법...

일시_ 2005년 2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_ 불광교육원 3층 대륜당
정원_ 선착순 180명
접수_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02-420-3200)

서광 스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 월간 불광에 오랫동안 현대 심리학과 마음공부에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으며, 불광출판사의 스테디셀러인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 『불교상담심리학입문』, 『마음의 치료』,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한영불교사전』 등을 펴냈다.

since 1974, 정통불교의 맥을 이어온 순수불교잡지 월간「불광」 정기구독에 동참해 주십시오.